

수  
마  
나  
마  
꿈

2026.04



남선교회연합회 주관  
소망가족 신앙수련회

# 세상나라에서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살기

(단 2:3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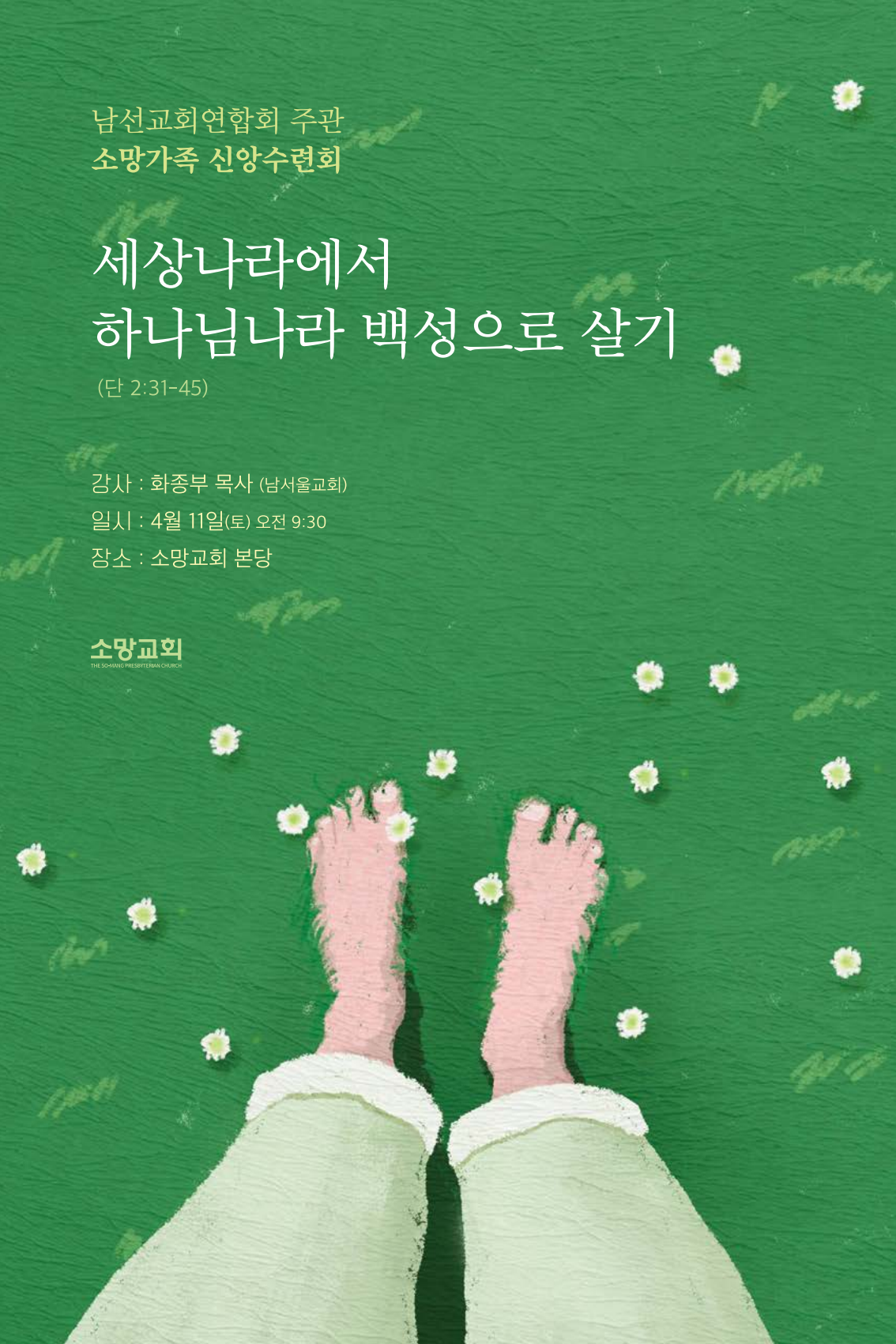
강사 : 화종부 목사 (남서울교회)

일시 : 4월 11일(토) 오전 9:30

장소 : 소망교회 본당

**소망교회**

THE SO-WANG PRESBYTERIAN CHURCH



202604

소망  
마음  
나눔  
집

© 2026 소망교회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잘못 만들어진 목상집(소망말씀나눔)은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CONTENTS

April | 2026



## FAITH

하늘을 여는 기도  
더 깊은 자리로 4

깊어지는 영성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길 | 김경진 6

목상에 붙임  
성도의 떨림과 응답 | 아브라함 헤셀 10

## WORD

소망말씀나눔 활용법  
준비·이해·적용·기도 14

말씀 개관  
이사야 16

4월 본문  
이사야·스가랴·고난주간 본문 24  
1주(4/6) | 2주(4/13) | 3주(4/20) | 4주(4/27)



## COMMUNICATION

땅끝에서 온 편지  
돌려보낼 곳이 없는  
의사들의 새벽 | 이재훈·박재연 40

소망사랑방  
하늘 잔치의 새 자리가 열렸습니다 | 오창재 78

숨겨진 보화, 선교사들 이야기  
다재다능 팔방미인, 윌리엄 레이놀즈 | 정의진 114

공간공감  
보구여관 | 홍성찬 148

이달의 기도  
구름 너머의 햇살을 바라보며 172

곁에 있는 은혜  
한 짝이라는 경이 | 김수진 174

믿음의 사람들 오늘을 살다  
요셉 :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 | 양주희 176

말과 말 사이  
나는 어떤 꽃일까 | 최고은 180

빛이 머문 자리  
루앙 프라방 몽족마을, 십자가의 빛 | 최성수 184

예배자의 길  
4월, 우리의 고백 | 김수정·김미혜·김경연 186

말씀의 흔적  
왕의 명령으로 태어난 성경  
- 킵 제임스 성경 | 최형근 190

신앙의 나침반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삶 | 김선권 194

소망뉴스  
4월 소식 198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길목에서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마침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깊어지는 영성

#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길

글 김경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수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 참여가 혹시나 자기의 공로나 형식적인 행위가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4)*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구원을 위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유지되기 위한 성도들의 모든 수고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 구원받은 이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 답을 구하며 성찬의 자리를 주목해 봅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다음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왜 바울은 성찬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까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린도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교회의 성찬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저녁에 모여 식사하고 예배드리곤 하였는데, 부자들은 자리에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예배와 성찬에 임했습니다. 반면 생업에 종사하느라 늦게 도착한 가난한 이들은 음식이 바닥나 배를 곯아야 했습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소외와 차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분열’이라고 표현합니다(고전 11:18).

바울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예수님이 제정하셨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전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는 말씀에 이어 성찬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전 11:26, 새번역)*

바울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며 그 고난에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고전 11:33, 새번역)*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준 처방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 상대를 위한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비난과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그렇게 멀고 험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개인의 차원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다. 그는 예수께서 그토록 원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작은 일이지만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 작은 몸짓은 선함의 번짐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성도의 떨림과 응답

글 아브라함 헤셀



신앙은 삶의 신비를 느끼고, 경이와 놀라움 혹은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 기인하지 않는다. 신앙은 그 마음, 그 신비와 경이와 두려움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그 모두와 만날 것인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 그 신비 속에 홀로 남겨진 고립 상태를 벗어나 그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각하는 지점이 우리의 출발이다. 그 물음은 우리의 영혼을 긴장시키고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 물음은 인간 편에서의 응답을 요청한다.



경이는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다. 끝없이 경이로워서 한다는 것은 끝없는 긴장 속에 머문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품은 경외심이 얼마나 불충분하며, 그 충격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자각하며 다시금 놀란다. 궁극적 물음이 우리를 향해 던져지는 것이다.

**끝없는 경이는 우리의 존재가 무한한 생명에 빛지고 있음을 일깨운다.** 경이를 느끼는 마음에는 자기 과시가 들어서지 못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빛진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세계는 그저 무수한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존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며 우리는 이에 응답한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받는다는 뜻이다. 형언할 수 없음은 기실 그 자체로 우리를 향해 주어진 물음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물음에 응답할지 또는 거부할지의 선택만이 남는다. 경이에 더욱 깊이 귀 기울이는 이는 그 물음에 응답하게 된다. 경이 속에서 우리가 그 물음을 거부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오만과 무감각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은 무게를 느끼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그 무거움을 보다 가벼운 짐으로, 단순한 정답으로, 피상적인 목적의식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실상 그 짐을 내려놓기란 불가능하며,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 짐을 이고 갈 수도 없다. 이것이 경이를 느끼는 이가 처하게 되는 상황이다.

-아브라함 헤셀 『예언자의 말들』(복있는사람, 2026) 36~37쪽.